gallery SoSo 참여작가 소개

권순영

권순영(b. 1975)은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환상의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로해왔다. 단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으며《유령의 땅》(더 소소, 2023),《눈물의 여정》(갤러리 소소, 2017),《슬픈 모유》(갤러리팩토리, 2014),《Flashback》(관훈갤러리, 2007)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.《The SoSo special》(더 소소, 2022),《밤을 넘는 아이들》(서울대학교미술관, 2022),《현대회화의 모험: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》(국립현대미술관 청주, 2019), 《솔로쇼》 (해담하우스, 2018), 《스틸엑츠》 (아트선재, 2016),《무진기행》 (금호미술관, 2016)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. 2022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전속작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갤러리 소소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.

개인전《유령의 땅》(2023, 더 소소) 전시 전경

Deep sea, 2023, 한지에 채색과 꼴라쥬, 26.3×37.2cm

CHANEL, 2023, 한지에 채색, 25 x 34.3 cm